

# 사랑이 가벼워진 시대, 참사랑은 무엇인가

미국의 천재 시인으로 일컫는 에밀리 디킨슨(1830-1886)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랑에 흥미를 잃으면, 다른 물건처럼 우린 사랑을 서랍 속에 넣는다"고. 시인의 말처럼 서랍을 열면 안에는 소중한 물건들이 있기 마련이다. 사진이나 열쇠, 명함, 메모지 같은... 그것들은 한때는 소중한 물건이지만 차마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이다. 아마 사랑도 그와 같은 것인지 모른다. 시인의 표현대로 우리는 지난 사랑을 서랍 속에 넣어두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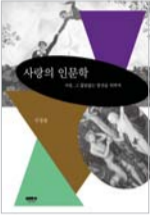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사랑의 인문학

주창윤 지음

신화학, 사회학, 문화이론, 심리학 등을 바탕으로 사랑의 본질을 탐색한다. '사랑, 그 끊임없는 발견을 위하여'라는 주제가 말해주듯 책은 과거의 사랑과 현재의 사랑이 왜 달라졌는지 인간은 왜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지, 왜 사랑을 하면 아픈지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지난 2015년 발간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대폭 개정한 것으로 페미니즘과 사랑, 동성애, 열정 등 복합적인 의미 등이 새롭게 담겼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기 전까지 사랑을 한다. 일반적으로 사랑을 하기도 하고, 그 반대로 받기도 한다. 어느 경우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지속한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랑에 대한 정의 또한 달라졌다. 예술가들에게 남녀의 사랑은 가장 매력적인 소재이자 영원히 풀어야 할 숙제와도 같다.

분명한 것은 오늘날의 사랑은 고전적인 사랑의 양상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썸타기', '디지털 사랑', '젠더의 해체'와 같은 새로운 용어로 불리며 화두로 떠올랐다. 사랑에 관한 조언을 담은 책이 인기를 끌고, 사람들은 연애 트렌드를 분석하며 사랑을 논한다.

사랑의 본질을 인문학의 시선으로 탐구하는 책이 발견됐다.

주창윤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가 펴낸 '사랑의 인문학'은 사랑이란 무엇인지 묻는다. 저자는 문학, 철학, 영상학,

“사랑하는 두 사람은 땅과 우주 사이에 있는 두 개의 별이다. 모든 별이 그렇듯이 사랑도 중력과 궤도를 갖고 있다.” 아마도 책을 관통하는 일관된 주제일 것 같다. 저자는 사랑을 '일만 개의 직소퍼즐' 같다고 한다. 이것들을 맞추어갈 때 어렵듯이나



왼쪽에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이 세속의 사랑을, 오른쪽 나체의 여인이 천상의 사랑을 의미한다. 티치아노 베셀리오 '천상의 사랑과 세속의 사랑'

## 문학·철학·영상학·신화학 등 시선으로 사랑의 본질 탐구

## 페미니즘과 사랑·동성애 등 복합적인 의미 새롭게 담겨

## 사랑은 끊임없는 발견이자 하나됨이 아닌 둘이 되는 것

## '혼자 남아있다'는 불안감 속에 살아 사랑이 중요

사랑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아가 사랑은 두 사람 사이의 공유되는 체험이기에 원본이 있을 수 없으며 하나의 대답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사랑은 ‘끊임없는 발견’이라는 것이다. 이 책에서 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사랑은 나에게 대한 발견으로 시작해서 타자에 대한 발견, 그리고 둘 사이를 매우는 불안정한 과정이라는 것이었다.”

로 시작해서 타자에 대한 발견, 그리고 둘 사이를 매우는 불안정한 과정이라는 것이었다.”

저자는 또한 사랑은 '하나 됨이 아니라 둘 됨'이라고 강조한다. 플라톤을 포함해 낭만적 사랑론자들은 사랑을 하나 됨, 다시 말해 둘의 융합이라고 봤다. 그러나 '사랑은 한 두대 안에서 둘 됨의 과정'으로 '나와 너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둘의 세계를 구축하는 실천'인 것이다.

마치 그림의 의미가 하나가 아닌 것처럼 사랑의 의미 또한 고정돼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두 사람은 융합과

변화의 과정을 통해 사랑의 의미를 창조해 간다.

그와 반해서 저자는 사랑이 섹스화되면서 어떤 경향이 '사랑' 인가를 판별하는 기준을 약화시켰다고 본다. 그로 인해 '하룻밤 사랑(섹스)'도 사랑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갑자기 섹스의 경험이 풍부해지면서, 사랑한다는 것이 섹스를 더 많이 나누는 경험의 축적으로 인식된 것이다. 연인들은 다음 번 사랑을 현재 즐기려는 사랑보다 훨씬 더 짜릿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환상을 갖는다."

작금의 사랑은 디지털 문화의 특징인 유목문화와도 닮아 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경향이 현대의 사랑법인 썸타기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왜 지금 사랑이 중요할까? 저자는 우리는 '혼자 남아 있다'는 불안한 감정 속에 살고 있다고 본다. 가족, 친구, 동료의 관계는 생각만큼 견고하지 않아 쉽게 무너진다. 지금의 사랑이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관계 위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

"인정육구는 말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다. 불안감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열정과 낭만이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초월적 가치라면, 인정육구와 불안감은 사랑으로 극복하고 싶어 하는 현실적 가치이다." <마음의 숲·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그분을 생각한다

한승헌 지음

'1세대 인권 변호사'는 한승헌 변호사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말이다. 한 변호사는 독재정권 아래서 탄압받는 양심수와 시국사범을 변호하고 민주화, 인권운동에 매진했다. 남정현의 '분지' 사건을 비롯해 동백림 간첩단 사건, 월간 '다리' 사건 등 한국현대사 속 굵직한 사건들의 변론을 도맡았던 그가 27명의 '잊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다.



한승헌 변호사가 펴낸 '그분을 생각한다'는 세상을 바로잡았다며 헌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른길을 지키며 살아간 '그분'과의 추억을 진솔하게 술회한다. 책에는 거리의 스승 함석헌 선생을 비롯해 한국 앵크스티 초대 이사장 김재준 목사, 동백림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이응노 화백, '광주의 어머니' 조아라 선생, 북한에서 만난 고교 선배 인민예술가 정창모 화백과의 교유가 담겨 있다. 그뿐만 아니라 김대중, 문재인 전현직 대통령 등 국경과 지위 고하, 남녀를 막론하고 한국현대사의 획을 그은 거목들과의 이야기도 수록돼 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내가 접한 인물 중에는 메마르고 야속한 이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사서 고생 하는' 분들이 많았기에, 그들의 삶을 널리 알리려 독자 여러분의 인생역정에 아름다운 도반(道伴)으로 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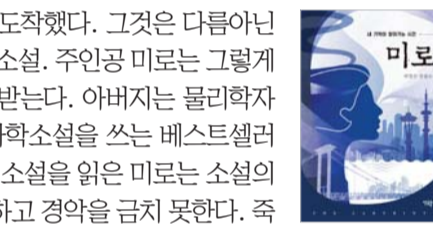
그렇다고 이 책이 평전이나 일대와는 거리가 멀다. 저자는 직간접적으로 교감한 인물과의 접점과 경험을 사실대로 전할 뿐이다. 윤색과 미화가 없이 삶의 그대로의 모습을 전하려는 데 초점을 뒀다. 저자는 "세상을 바로잡았다며 헌신한 인물들, 어려운 삶 속에서도 바른길을 지키며 살아간 분들, 그들이 보여준 삶의 실제와 교훈을 널리 알리는 데 이 책이 기억과 깨달음의 각성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문학동네·1만5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미로

하창수 지음

때는 2041년, 14년 전에 보낸 메일이 도착했다. 그것은 다름아닌 시간을 넘어 찾아온 죽은 아버지의 유작 소설. 주인공 미로는 그렇게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는다. 아버지는 물리학자이면서 '닥터 클린위스'라는 필명으로 과학소설을 쓰는 베스트셀러 작가였다. 메일에 첨부된 아버지의 유작 소설을 읽은 미로는 소설의 이야기가 점차 현실이 돼가는 것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죽은 아버지가 그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소설가이자 번역가인 하창수가 신작 소설 '연금술사'를 펴냈다. 한국일보문학상, 현진건문학상 수상작가인 그의 장편은 미래 2041년을 배경으로 하는 뉴사이언스 소설이다.

"기억은 참 미묘하다. 사실 기억이 미묘하기보다는 기억의 시스템, 즉 기억과 망각 사이에 놓인 '다리'가 더 미묘하다. 그 다리는 왜 한 번 건너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어떤 것은 왜 다시 돌려보내는 걸까- 그것이 미묘하다..."

소설 속 2041년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미국과 유럽 강대국들의 주도 하에 전 세계가 통합됐고 한반도는 상호 경제개방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통일이 이루어진 상태다. 소설의 배경은 북한 강원도 북부에 위치한 원산이며, 이곳은 첨단 과학도시로 설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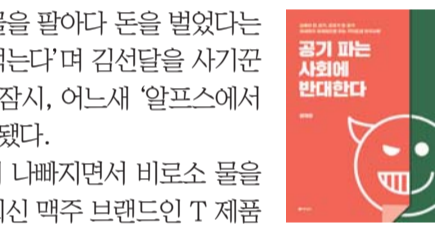
주인공 미로는 스텔라 첫 엔지니어다. 세계 우주산업체 슈퍼퓨처사 산하의 스피릿 필드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한다. 그러나 슈퍼퓨처사는 '물질의 생성에 필요한 에너지'를 연구하는 데 막대한 금액을 쏟아부었지만 성과를 얻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로는 연합정부 정보국의 교육정보통신담당관 써니라는 여자를 만나면서 의도치 않게 아버지의 숨겨진 죽음과 메일의 진실에 다가간다. <연금술사·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

장재연 지음

유명한 설화인 불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다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공공재나 다름없는 물을 팔아먹는다'며 김선달을 사기꾼의 대명사로 만들었다. 이를 비롯한 것도 잠시, 어느새 '알프스에서 길어 온 물'에 기꺼이 지갑을 여는 시대가 됐다.



최근 세계 곳곳이 미세먼지로 공기질이 나빠지면서 비로소 물을 넘어 '공기'를 파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신 맥주 브랜드인 T 제품은 공기 좋은 호수에서 원료를 공수한다며 '정정 라거'를 위시했고, 공기정정기는 전에 없이 매출이 크게 뛰었다. 30년 넘게 대기오염 문제를 연구하고 환경운동을 펼쳐 온 아주대학교 의대 장재연 교수가 이 현상을 분석한 책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를 펴냈다. 저자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우리나라의 대기질은 전 세계 최상위에 속하며, 환경부에서 제시한 80%에 달하는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율은 근거 없는 추정치에 불과하다.

저자는 공기에 대한 공포가 만연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천둥설'에 비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에서 한국 사회의 맨얼굴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잘못 알려진 정보를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하고, 기업의 '공포 마케팅', 학계의 잘못된 연구 방향, 관련된 가짜 뉴스의 생산원과 확산 방식을 짚어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1부에서 '사상 최악의 공기질'로 일컬어지는 미세먼지의 실체를 세계보건기구 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2부에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력을 파헤친다. 이어 3부에서 언론이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 공포를 조장한 사례와 그 정보가 확산되는 과정을 짚어보고, 4부에서 마스크, 차량2부제 등으로 '개인이 공기를 직접 책임져야' 하는 사회의 이면을 살펴본다. <동아시아·1만60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FACE 메이크업은 하시면서,  
**BODY** 는 왜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십니까 ?

4주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속속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우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칙외산파동)

www.aroma-life.co.kr

**1588-2219**